

동남고 해양소년단 드래곤 보트대회 最强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드래곤보트대회 1위



지난달 29일 함양여고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드래곤보트경기대회에서 고등부우승을 차지한 동남고 한국해양소년단 학생들과 이만희 지도교사(가운데).

동남고등학교 한국해양소년단(지도교사 이만희)이 지난 5일과 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제10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드래곤 보트 부문에서 남·여 각각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바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했다.

한편 동남고 해양소년단원들은 지난달 29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한강 여의나루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드래곤보트경기대회에서 고등부우승을 차지했다.

이만희 교사는 "해양소년단원들이 단합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드래곤 보트뿐 아니라 다양한

레저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단원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남고 해양소년단은 2001년 이만희 지도교사와 29명의 학생으로 창설, 연간 전일제수업을 통해 스킨스쿠버와 수상스키, 레프팅, 패러글라이딩, 크레이 사격 등 레저활동을 체험 실시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길거리농구의 이정표 세운다

도지사기 길거리농구중·고부각위

포천시 중·고등부 농구 선수들이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수원시에서 개최된 제9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증진은 물론 농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포천시는 이재훈 감독과 이희주 주무, 강경석 코치와 중등부와 고등부 선수 등 총 15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중등부에서 포천은 이천과 공동3위를 차지했고, 고등부에서 역시 이천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등부는 하남이, 고등부는 오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시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고등부는 3년전에 3위를 한 적이 있으나, 중등부는 처음 3위에 올랐다"며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는 ▶중등부 박건(포천중 3년), 이용훈, 유정석, 김성수, 박세혁 ▶고등부 김성환(포천고 3년), 김희원, 조바울, 조진형, 윤찬솔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애벌레가 나비로 되기까지...



김연수 (학생예기자 동남중 1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아기의 순수한 얼굴, 화려한 꽃들, 훌륭한 예술작품 등 그리고 사랑. 하지만 아무도 꿈틀거리고 기어가는 애벌레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애벌레는 힘겨운 내적 변화로 아름다운 나비로 변한다. 애벌레는 힘겹게 한올 한올 실을 뽑아내며 긴 시일동안 고치 속에서 변화를 느끼며 마침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이 날아오르는 나비가 된 것 같다. 이것이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작가 트리나 플러스가 나비로 변한 애벌레의 이야기를 통해 내적 변화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것 같다.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징그러운 애벌레라도 작가의 눈에는 내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낸 것이다.

나도 나만의 재능과 끼를 찾아

서 나만의 내적 변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멋진 나비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비추는 내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비추는 모범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읽고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담은 모나리자



조현지 (학생예기자 내춘초 3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보면 모나리자의 미소가 무척 신비롭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눈썹이 없으면

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모나리자는 나폴레옹의 침실에도 걸려있었고, 1911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낮에 큰 가방을 들고 온 사내가 몰래 모나리자를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밀을 밝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도둑이든지 2년만인 1913년에는 다시 그림을 되찾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나리자는 더욱 유명해 졌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친근감이 있으면서도 지루함을 주지 않아 여전히 전세계 인으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 인기 있는 그림이다.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30)

포로가 되어

순간 아디에선가 새까맣고 두 눈가에 노란 점이 박힌 커다란 사냥개 한 마리가 내가 올라 서 있는 복숭아나무 밑에 달려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며 물려고 마구 뛰어 올랐습니다.

"엄마야..."

나는 나무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무를 내려오다 넘어지고 아담뱀씩입니다.

"누구야, 이놈들!"

주인으로 보이는 큰 키에 구레나룻을 기르고 군복을 까맣게 물들여 입은 아저씨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나타났습니다.

"오! 요놈들 빠라!"

아저씨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가소롭다는 듯 조소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가려 했지만 아무도 높은 철조망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전정

포로처럼 한 줄로 서서 그 사나운 사냥개가 경경 짚는 소리에 오금을 질며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과수원 한 가운데 있는 주인의 집으로 죄인처럼 호송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들을 마당에 무릎을 꿇려 앉히고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

마치 무장장비를 잡은 국군 소위처럼 어색하지만 기세 좋게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가슴이 설죽하여 "에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안되겠다. 이놈들, 기암을 좀 더 받아야겠어!"

아저씨는 또다시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녁살같은 재한이가 애원하듯 졸랐습니다.

"너희 이놈들 모두 일어서!"

또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까.

"너희들 모두 이리 와봐."

아저씨는 창호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빈 창살만 남아 웅하니 구멍이 송송 뚫린 방문의 열쇠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리로 들어와!"

전보다 좀 낮은 툽의 목소리로 소리치며 먼저 방으로 들어간 아저씨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순순히 방으로 따라 들어가니 방 안은 복숭아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공중에 손을 휘젓더니 30짜리 백열등을 켜줍니다. 순간 우리들은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방 안에는 미리 따다 놓은 복숭아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복숭아 먹고 싶지?"

"네."

주인아저씨의 말에 우리들은 생각이 돌아 마치 소풍가는 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듯 우렁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차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들 실컷 먹어. 어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 대신 복숭아 실컷 먹고 나서 이 복숭아에서 벌레먹은 복숭아와 꺾거나 썩은 복숭아를 모두 다 고르고 집어가는 거야!"

아저씨는 속웃음을 입가에 비치며 나가더니 밖에서 다시 자물쇠를 잠그셨습니다.

"너희들 도망 가지마! 도망 갈까봐 잠그는 거야."

아저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계속)

경기도 청소년 장학증서 전달

총 60명 경기도 청소년장학생 선발돼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5 경기도 청소년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5 경기도 청소년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

했다.

올해 포천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18명,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7명, 실직자 자녀 5명, 자활청소년 3명, 농업경영인 자녀 1명 등, 모두 60명이 경기도 청소년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학업장학금으로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실직자·농업경영인의 자녀와 자활청소년에게는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이 생활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경기도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